

나경수 교수(화학과)팀 온실가스로 고부가화합물 생산기술 개발

CNU NEWS



전남대학교 나경수 교수팀이 이산화탄소와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활용해 고부가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.

전남대 나경수 교수(화학과) 연구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순차적 활성화 반응의 실험 조건인 반응온도, 압력, 기체주입유량, 추출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, 아세트산 생산성을 기존 선행연구 대비 약 10배 이상 향상하는 결과를 이끌었다.

이 연구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만을 화학 반응의 원료 물질로 사용하여 고부가화합물을 제조한다는 측면에서 탄소 중립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.

이 연구는 환경공학 계열 최상위 저널 'Applied Catalysis B: Environment and Energy'(영향력지수 22.1, JCR 상위 1% 이내) 6월 14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.

